‘뇌 건강’ 新 패러다임… “증상완화 넘어 조기진단으로 전환”

대한신경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신경과질환 복잡한 과정 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단편적
높은 약가, 급여 기준 등 지적



대한신경과학회 서대원 이사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청하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의 사회적 부담이 폭증하면서, 신경과 진료 패러다임이 단순 증상 완화를 넘어 ‘조기 진단과 근본적 치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복합 진료 특성과 24시간 응급 대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 및 까다로운 급여 기준이 환자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6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신경과학회(ICKNA) 2026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 주제는 ‘뇌 건강’으로 신경과학 미래 비전, 정책 과제, 최신 동향 등을 다뤘다.

서대원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현대사회에서 뇌와 신경망 건강은 개인 삶을 넘어 국가 핵심 과제”라며 “학술적 성취가 실제 진료실의 환자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학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편두통의 신경염증 기전, 알츠하이머병의 병태생리, 파킨슨병의 피부 조직 바이오마커, 의료 AI의 임상 적용과 안전성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신경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했다.

대한신경과학회 신제영 총무이사(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교수)는 “과거에는 증상 완화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편두통 통증 유발 물질을 선제 차단하는 표적 치료, 치매 발병 위험도와 약물 부작용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분석한 질병조절치료제, 피부 조직 검사로 독성 단백질을 찾아내는 파킨슨병 조기 진단 등 정밀 의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낡은 보건의료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대한신경과학회 최호진 재무이사(한양대 구리병원 교수)는 “신경과 질환은 수치 하나로 진단이 끝나는 타 과와 달리 신경학적 평가, 영상, 뇌파 등 3~5단계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단편적 행위만 보상한다”며 “뇌졸중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24시간 원내 대기하는 당직 시스템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과 전공의 수련 공백 지원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비싼 약가와 경직된 급여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학회 측은 “치매 신약 레켐비를 비롯해 희귀 신경면역질환 신약이 나와도 높은 약가 탓에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저가 약물 실패를 증명해야만 신약을 쓸 수 있는 깐깐한 급여 기준을 완화해 1차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독자적인 중추신경계(CNS) 파이프라인 성과를 무기로 상업화 안착과 자본시장 도약이라는 두 축에서 괄목할 성적을 내고 있다.

우선 국산 신약 상업화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 뇌전증 혁신신약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수익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세노바메이트 소아·전신화 발작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SKL32276’ 전임상도 진행한다. 또 방사성의약품치료제(RPT), 표적단백질분해(TPD) 등 차세대 모달리티로 파이프라인을 강화해 ‘한국형 빅 바이오텍’으로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텍 아리바이오의 자본시장 입성 추진도 기대감을 높인다. 아리바이오는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13개국 1535명 대상) 주요 결과 데이터에서 1차 유효성 지표를 충족하며 상용화 청신호를 켰다. AR1001은 아밀로이드 응집체 제거, 타우 단백질 억제, 뇌혈류 개선 등을 동시에 구현하는 다중기전 후보물질이다.

대한신경과학회 김범준 미래전략특임이사(서울아산병원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신약과 디지털·AI 의료기술이 내수를 넘어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임상적 근거를 뒷받침할 학회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현지 기후·소비자 공략 성과 블랙포레, 대만 ‘라이징스타상’

애경산업 탈모 케어 전문 헤어 브랜드
대만 왓슨스 입점 후 月 3000개 판매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두피 열감과 피지 관리 고민이 깊은 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K-헤어케어 브랜드가 현지 대표 뷰티 채널에서 존재감을 입증했다.

애경산업은 탈모 케어 전문 헤어 브랜드 ‘블랙포레’가 대만 왓슨스가 주관하는 ‘건강미용대상’에서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지 기후와 소비자 특성에 맞춘 제품 경쟁력으로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블랙포레는 무덥고 습한 대만 날씨를 고려한 시원한 쿨링 사용감과 두피 유분·피지 케어 전문성을 앞세워 현지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실제 판매 성과도 가파르다. 지난 5월 초 대만 전역 약 600개 매장을 보유한 대만 왓슨스에 본격 입점한 이후 월평균 약 3000개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행사 기간에는 월 4500개까지 판매고가 뛰었다. 지난달에는 민감성 두피 케어 샴푸를 추가 출시해 두피 고민별 제품군도 확대했다.

애경산업은 대만 흥행을 발판 삼아 글로벌 유통망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7년 1분기 홍콩 왓슨스 입점을 추진 중이며 중국·러시아·폴란드 등으로 판매 국가를 넓혀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블랙포레는 국가별 기후 특성과 소비자의 두피 관리 요구를 반영한 제품 경쟁력을 갖췄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두피 케어 제품으로 국내외 소비자 접점을 지속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한미사이언스 “캡슐·앰플 한 번에 바른다”

이중제형 스킨케어 ‘미라클 퍼플 앰플’

K뷰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엇을 넣었는가’에서 ‘어떻게 바르는가’까지 제형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사용 직전 두 가지 제형을 직접 섞어 유효 성분의 신선도를 높이고 사용 과정에서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하는 화장품이 대표적이다.

한미사이언스는 고급 더마 화장품 브랜드 아데시 신제품으로 동결건조 캡슐과 액상 앰플을 혼합해 사용하는 이중제형 스킨케어 ‘미라클 퍼플 앰플’(사진)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분·광채 성분을 응축한 붉은빛 동결건조 캡슐 ‘레드 이펙트’와 진정·항산화용 푸른빛 액상 베이스 ‘블루 앰플’을 혼합하면 보랏빛의 ‘미라클 퍼플 앰플’이 완성된다.

각 제형에는 아데시의 피부과학 노하우와 핵심 성분이 집약됐다. 레드 이펙트에는 히알루론산과 나이아신아마이드, NMN 등을 배합해 피부 탄력과 보습을 돕는다. 블루 앰플에는 독자 항산화 성분 ‘H-EGTI’를 중심으로 판테놀·아줄렌·비타민K·마린엑소좀 등을 담아 피부 장벽과 진정에 효과를 갖췄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피부 개선 지표도 확보했다. 2주 사용 후 피부 겉 탄력은 3.95%, 속탄력은 4.79% 개선됐다. 또 1회 사용만으로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거칠기(결 컨디션)가 11.89% 완화됐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男 육아휴직 의무화, 업무공백 해소
가족친화 경영 인력 이탈 방지로 직결

한국콜마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까지 보상하는 파격적인 가족친화 제도를 통해 퇴직률을 낮추고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있다. 자회사 HK이노엔도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해 그룹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콜마는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6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자회사인 HK이노엔 역시 선택근무제와 시간 단위 연차 등 유연근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일·육아 병행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 심사를 거쳐 평가한다.

한국콜마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4년부터 남성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1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3년 대비 18배 이상 급증했다. 출산장려금도 2024년부터 첫째·둘째 각 1000만원, 셋째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현재까지 임직원 150여 명에게 지급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현장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상생 문화도 독보적이다. 한국콜마는 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별도 휴가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콜마육아동료 업무지원제’를 도입해 부서 내 눈치 보기를 없앴다. /이청하 기자

파마리서치, 글로벌서 브랜드 보호망 강화

리쥬란코스메틱 대표 제품 4종
‘K-브랜드 정부인증’ 선정

파마리서치가 자체적인 인공지능(AI) 위조품 감독과 법적 대응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IP) 보호망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 정품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코스메틱’의 대표 제품 4종이 ‘K-브랜드 정부인증’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은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제도다.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1기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파마리서치 김원권 경영전략본부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리쥬란 듀얼 이펙트 앰플 ▲리쥬란 뉴트리티브 크림 ▲리쥬란 턴오버 앰플 ▲리쥬란 턴오버 마스크 등 4종이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플로디시티닙 약물 최적 용량 도출 속도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플로디시티닙’의 체내 약물 반응 예측 모델을 구축하며 후속 환자 대상 임상을 위한 최적 용량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제주에서 열리는 ‘2026 대한임상약리학회(KSCPT) 추계학술대회’에서 플로디시티닙(DWP212525)의 임상 1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집단 약동학·약력학 모델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플로디시티닙은 경구용 자가면역·염증성 질환 신약 후보물질이다.

특정 경로만 차단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사이토카인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JAK3’, T세포 수용체 신호를 매개하는 ‘ITK’, B세포 수용체 신호를 매개하는 ‘BTK’를 동시에 억제하는 삼중 표적 기전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부광약품
15년 R&D 성과 빛났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부광약품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15년간 이어온 연구개발(R&D)로 성과를 냈다. 부광약품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6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시장 진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정부 제도다. 부광약품은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래 연속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며 올해로 15년째 인증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